



보문특수칼라 고광옥 대표

고품질 인가공 통해 고품질 패키지시장 선도 토탈시스템과 최고의 기술이 결합해야 가능

업체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보문특수칼라는 1991년 설립해 지난 20여년간 화장품, 고급 패키지 등 UV인쇄를 전문으로 한 회사입니다. 또한 디자인 전담 사업부인 보문P&P를 별도로 뒤 의뢰받은 디자인을 단순히 인쇄해주는 단계를 넘어 한발 앞선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사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12월 하이텔베르그의 'CD102-6LX, UV 오프셋 인쇄기'를 도입했는데, 이 인쇄기는 다양한 용지에 정확한 급지 편 맞춤으로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며 흡집이 나기 쉬운 용지에도 성공적으로 인쇄가 가능한 인쇄기입니다.

보문특수칼라는 하이텔베르그의 'CD102-6LX, UV 오프셋 인쇄기' 이외에도 수프라세터 CTP, CD74 6색, 금박기, 수성 건식 라미네이팅기, 썬블 필름 라미네이팅기, 샘플 커팅 테이블 등 디자인과 인쇄, 후가공에 필요한 모든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따라올 수 없는 인쇄품질, 수작업을 통한 품질인증, 전수검사를 통한 품질검사 등이 우리 보문특수칼라의 핵심입니다.

우선 인쇄품질의 경우 20년간의 업무노하우가 쌓여져왔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인쇄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는 등 상대적으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많아 인쇄기술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특수칼라가 UV인쇄로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UV인쇄의 경우 출판인쇄 등 다른 인쇄분야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는 사용하는 재질에 따라 똑같은 잉크인데도 다른 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UV인쇄의 관건은 인쇄종이재질과 잉크 전반에 대한 지식과 업무노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가공을 통한 품질확보입니다. 포장상자 접지의



경우 모든 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접는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문특수칼라의 핵심은 바로 탄탄한 인가공 시스템입니다. 현재 50여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고급케이스의 수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은 한달 내내 작업을 해도 작업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다른 인가공업체에 비하면 월등히 빠르고 정확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수검사를 통한 품질검사입니다. 보문특수칼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포장에 조금 잘못됐다면 그 상품을 고르지 않는 것처럼 내 상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꼼꼼하게 체크한 뒤에야 출하됩니다.

이처럼 섬세한 인쇄와 꼼꼼한 인가공, 전수검사를 통해 우리 보문특수인쇄가 최고의 품질만을 생산하는 업체로 정평이 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털 시스템과 함께 최고의 기술력으로 현재 100여 곳에 이르는 화장품기업과 고품질을 원하는 다양한 기업 및 정부기관들과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패키지 전문3D프로그램을 도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패키지인쇄물의 경우 작업한 모습과 패키지로 완성된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년전 국내최초로 패키지 전문 3D프로그램인 '비주얼 라이즈'를 도입했습니다. 일러스트나 기타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그래픽과 카드에서 도안된 칼선을 바탕으로 실제 상자를 입체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프로그램보다 빠르고 간단합니다. 또한 패키지 전용 프로그램답게 접지선과 칼선을 알아서 인식해서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원단, 금박, 형압, 코팅 등 후가공 등을 적용하여 실제로 양산될 제품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은 정말 일하기 편리해졌다고 좋아하십니다.

또한 고객사가 생각하는 인쇄의 색과 질감이 일치하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싸이안 잉크라도 하더라도 잉크사마다 색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같은 회사의 잉크라도 종이에 따라 인쇄 후 색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도입배경이자 우리 회사의 고객관계강화 전략입니다.

인쇄물 수출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인쇄물 수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모 회사로부터 의뢰가 들어와 인쇄작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것보다 일본의 인쇄작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본 관계자가 우리의 인쇄물을 보고 매우 흠족해하시며 돌아갔습니다. 힘들지만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일본시장공략을 위해 일본어에 능숙한 딸 희란이와 영업사원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으로도 포장인쇄물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에 참여해 보문특수칼라의 인쇄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문특수칼라는 작지만 인쇄물수출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장인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장인쇄 시장은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게다가 출판시장과 비교해서 경기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UV인쇄의 경우 인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쇄기는 좋아져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인쇄기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 즉 잉크나 종이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너무나 영세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일반 오프셋인쇄용지의 경우 한술 무림 한국제지 등에서 공급하지만 특수인쇄에서 사용하는 금 은지의 경우 중소업체에서 수입 가공하는 종이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공급하는 회사마다 종이질이나 성질이 달라 인쇄가 깨지는 등 역반응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UV인쇄분야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고도화된 품질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인쇄분야입니다. ☺

인남속 차장 sang@print.or.kr

보문특수칼라 소개

- 1991년 보문특수칼라 설립
- 2000년 하이델베르크 대국전 5색기 도입
- 2001년 사옥 신축 이전
- 2002년 자동튐손기, 3면자동접착기, 자동금박기
라미네이팅코팅기 도입
- 2006년 자동 실크기 도입
- 2007년 하이델베르크 국전 6색기 도입
- 2009년 하이델 수프라세터 CTP 도입
- 2010년 하이델베르크 6색 UV오프셋인쇄기 도입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1동 243-2

(02) 467-7612